

學術理事所管業務



學術理事 黃 泰 植

서울高麗病院長

活潑한 研究와 教育의 해로..

今年度 學術分野의 事業方向은 무엇보다도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計劃과 科學的인 調査 研究活動을 통하여 病院 經營合理化 方案을 提示하며, 醫療機器의 適正管理와 國內의 病院에 관한 최근 醫療情報을 迅速히 蒐集 提供하고 나아가서는 病院管理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教育의 活性化를 기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겠다.

세계는 지금 「2000年代」까지는 모든 人類에게 健康成就」라는 目標 아래 制度의 改善이나 事業展開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國民醫療保障의 擴大와 醫療傳達體系의 確立을 통하여 새로운 病院像의 정립과 醫療機關 相互間 및 醫療機關과 地域社會間의 새로운 關係構築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時점에 즈음하여 病院의 本然의 機能과 社會的 責任을 調和있게 先導하여 나아가 病院協會의 役割이 그 어느때 보다 莫重함을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

더구나 최근 의료보험의 擴大 實施는 病院 서비스의 量的·質的 增加와 함께 病院協會의 機能과 事業活動에 일대 變革을 強要하게 되었다. 即 病院醫療酬価의 社會的 統制로 病院經營은 점차 經濟的 壓迫을 받게 되었고 종래의 直觀的인 病院經營方式이 통하지 않게 되므로써 병원경영의 合理化, 의료수가의 適正化, 原価節減, 醫療機器의 효율적 운영, 전문적인 병원경영자의 養成, 병원정보시스템의 開發 및 確立 등 새로운 病院管理技法의 研究

開發과 病院醫療制度의 定立의 필요성이 提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病院經營에는 非科學的인 점이 많이 露出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고도로 精密해진 醫療機器를 비롯한 病院 施設을 運用하고 維持하는데 필요한 技術人力이나 專門的인 經營관리요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病院의 합리적 經營을 위한 内外情報의 蒐集과 活用이 未洽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과 技術교육연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病院協會의 中樞的 機能을 担当하고 있는 學術分野의 事業은 결국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計劃과 專門的이고 科學的인 調査 研究活動을 통하여 병원 醫療機器의 適正管理등에 관한 技術을 提供하고 經營합리화 方案을 提示하며, 國內外 病院에 관한 情報을 蒐集 提供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관리요원을 教育 訓練시켜나가는 役割을 担当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實踐的 手段으로 다음 몇

가지 부분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1. 病院管理学会의 活性化

病院에 관계되는 모든 情報과 原理를 算出해 내는 母體로서 病院管理学会의 운영을 活性化하는 것은 學術事業 部門의 研究機能을 強化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난 몇년 동안 病院管理学会의 活動은 醫療保險 「세미나」 및 「심포지움」 開催, 病院標準化 事業展開, AHF 會長 國 業務의 受任 및 IHF 지역회의 개최를 포함한 國際交流事業의 擴人 등에서 外形의인 面으로나 內實的인 面으로나 커다란 成長을 가져왔다. 그러나 協會의 사업활동중 어떤 부분에서는 理論的인 根據나 學術的인 研究結果가 未洽하여 그 實効性이나 客觀性을 認定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 管理学会 活性化를 위하여 먼저 實行해야 할 일은 분야별로 專門家들에 의한 諮問과 組織活動을 容易한 방향으로 学会會則을 補完하여 협회를 中心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나아가 關係專門家의 幅넓은 參與로 次元높은 病院管理向上 方案을 摸索해 나가야 겠다.

2. 病院情報體系整備 및 統計의 統一化

病院에 있어서 情報은 生命과 같다. 실제로 病院은 어느 組織體 보다도 情報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迅速·正確한 流通과 長期的 貯藏을 필요로 하는 機關이다. 病院의 모든 부서는 情報을 生産하여 交換하고 利用하면서 업무를 進行하므로 이러한 情報의 流通없이는 아무런 업무도 이루어 질수없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各種 醫療情報 및 經營情報를 蒐集·整理하여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病院에 관계되는 各種 情報樣式을 整備하고 이를 體系的으로 貯藏 保管하여 필요한 部門에 迅速히 提供할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병원간 統一性을 期할수 있는 裝置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病院통계의 統一化, 標準化는 病院協會를 비롯하여 政府나 學界에서 수차례 걸쳐 論議된바 있으나 우리나라 病院管理의 水準이 전반적으로 平準化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커다란 進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病院管理가 情報體系의 整備를 前提로 하여 그 實現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經營情報管理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病院統計의 統一化, 標準化는 既 着手된 병원표준화사업을 媒体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改善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要員의 教育 및 研究活動 強化

近來에 이르러 醫療의 先端部分의 高度화가 飛躍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病院經營의 樣相과 人的·物的 構造 및 업무운영방식 등에서 큰 隔差가 생기고 있으며 일찌기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多樣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病院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래에 攄得한 지식 만으로는 담당업무를 100% 遂行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病院協會의 경우에도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여러 原因으로 인해 보다 專門的이고 次元 높은 事業 方向을 推進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가 並行되어야 하겠다. 以上の 例로 미루어 볼 때 病院協會로서는 余他의 事業에 우선하여 教育和 研究活動에 集約的인 支援과 投資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協會가 會員病院을 대상으로 每年 實施하고 있는 專門分野別 실무요원연수 교육도 계속적인 研究와 補完을 통하여 內實化를 期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前述한 것 以外에 各種 세미나의 開催와 外國文獻의 번역 출판과 아울러 국제 학술심포지움의 開催로 업무의 活性化를 圖謀해 나가야 겠다. 아직도 病院界의 發展을 위해 서는 해야할 일들이 山積해 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하나하나 解決하고 成功的인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協會를 求心點으로 하여 會員病院의 끊임없는 努力과 聲援이 隨伴되어야 되리라 믿는다. ■